

네터즘 강추

잡초들의 생존전략, 허리급혀 들어 보실래요?

풀들의 전략 출판사 도솔, 이나기 히데히로 지음
 <풀들의 전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잡초, 가장 잡초다운 잡초 50가지를 면밀하게 연구 관찰, 알기 쉽도록 흥미롭게 풀어 쓴 글이다.
 잡초의 대명사 질경이가 세운 전략을 볼까?
 밟히고 밟혀도 곳곳이 살아있는 잡초의 대명사 질경이는, 어찌나 밟혔는지 자세히 보면 잎사귀는 구멍이 송송 뚫려있기 일쑤다. 굳이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만 골라 자라는 질경이는 오히려 사람의 발길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런데 질경이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을 택하면 금방 다른 식물들에게 쫓겨난다고 한다. 질경이는 다른 잡초들과의 경쟁 대신 사람의 발길을 당당히 받아들여 진화했기 때문이다.
 잡초들의 생존전략은 우리 인간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동물에게 먹히거나 밟히는 경우를 맞이하여 유리하게 바꾸는 위기관리, 필요 없을 때 쓸데없는 꽃을 피우지 않는 폐쇄화들과 근경, 질경이처럼 밟히는 경우 치명타가 될 줄기를 최대한 줄이는 절약, 개미와 식물들의 아름다운 공생과 은혜 갚기, 도주, 대규모의 비용 삭감 등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잡초의 생존전략이었다. 저자의 면밀한 관찰이 또한 놀랍다.



(dooen, book.naver.com/bookdb)

시적 영감으로 가득한 타고르 우화집

황금보트 작은이야기,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지음
 <황금 보트>는 '우화'가 아닌 '시'로 내게 왔다. '우화'에서 '시'를 읽다니,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화의 형식에서 시적 영감을 얻을 것이다.
 이 책에는 타고르의 종교적, 정신적 성찰이 담긴 삶의 우화 33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한두 페이지 분량의 콩트로부터 십여 페이지 정도의 짧은 단편까지 다양하다.
 나는 긴 이야기보다는 짧은 이야기들이 타고르의 세계를 더욱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비로소 결혼식이 끝났다' '뚫다에게 바친 연꽃' '실수로 노동자의 낙원에 간 남자' '오슬길' '어슬푸레한 빛 속에서 보았다', '라후의 사랑' '별의 자살' '구름의 전령'이 그러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나즈막히 속삭이기도 하며, 때로는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붙였다. 불현듯 서사가 시작되고, 영문도 모르게 단절되기도, 갑작스러운 인과관계가 성립되기도 하면서 <황금 보트>는 거대한 삶의 바다 위를 지나가는 것이다.
 언뜻 <황금 보트>는 타고르의 또 다른 시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황금 보트>가 유망하는 세계는 우리의 삶이며, 그러므로 이 책은 '우화'에서 '시'로 넘어간다.



(rainmars, blog.naver.com/rainmars)

책속의 밑줄긋기

○...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 이웃들은 이상한 옷을 입고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데 그 다름의 방식도 다르답니다. 우리는 모두 닮았지만 그 닮음의 방식은 다르답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거지요. 때로는 같은 것처럼 위장도 하고 말이에요.
 요정들은 언제나 기대하지 않을 때 나타나지요. 생명이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그곳에 있지요. 모래만 보이고 심한 열기가 느껴지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맨아 열매같은 생명체가 별안간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쩌면 생명이요. 그래서 생명이요. 슬픔이 있어요. 우리는 슬픔이 있기 전에 기쁨을 볼 수 있어요. 슬픔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없어요.
 - <깊은 이야기> 21-23쪽에서, 뒤터필로스, 페르 에스페르센 지음



플라톤의 <국가>, 마르크스의 <자본론>, 볼스토프의 <전쟁과 평화> 등 서양의 대표적 고전에서부터 피어 시그의 <선(禪)과 모타사이클 관리술>,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푸코의 <감시와 처벌> 등 현대의 고전까지.

서양의 고전을 읽자. 세월과 비판을 견디며 살아남아 우리에게 정의와 자유, 평등과 행복 등 삶과 문명의 화두를 던지는 많은 서양의 고전들 중에서 다시 읽어야 할 책이 수두룩 하다. 오늘의 '문화상황'이 고전을 갈망하는 것이다.

도서출판 휴머니스트가 발간한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1·2·3·4>는 68종의 고전을 각계의 전문가 58인의 저자들이 공동 참여하여 1권-인문·자연, 2권-정치·사회, 3권-문학, 4권-문화 등 4권에 나누어 담았다.

특히 이 책은 서양의 고전읽기가 21세기 한국이라는 시공간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재발견하고 있다. 서양 고전은 우리의 다른 배경과 문제의식 속에서 썩고 결실 맺은 것들이라 시대적 문화적 맥락을 짚지 못하면 이해가 곱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선 우리의 시각에서 서양 고전을 새롭게 해석한 듯 하다.

<1권 인문·자연>에서는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회상>을 소개한다. 그리스의 젊은이들을 미혹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할 운명에 처한 소크라테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씌어진 책인 만큼 대화술과 사상을 설명한다.

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범신론적 철학인 스토아 사상을 토대로 일기속에 담고있고,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보편적 방법을 통해 확실한 지식, 즉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철학을 말하고 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그것의 핵심주제인 삶과 자유, 행복의 문제를 설명하며, 칸트는 <형이상학적 서론>에서 새롭고도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밖에도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인간 의식이 진리를 찾아 헤메는 과정을 서술하며,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의 문제를 다른 의학 영역의 인도주의적 개혁이 과거의 유태적 감금보다 훨씬 철저하고 영구적인 형태로 정신에 대한 감금을 재생산하는 것에 대한 노련한 정당화라고 주장한다.

<2권-정치·사회>편에서는 철인정치론을 설명하는 플라톤의 <국가>와 국가의 구성요소와 구성원의 역할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설명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권모술수의 달인이자 냉혹한 정략가인 근대정치의 개념을 소개하며,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본이란 물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치를 증식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임을 설명한다.

뒤르케임은 <자살론>에서 자살행위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을 전형화 제시하며,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는 서양문화의 자기 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이어 <3권 문학 상>은 문학작품을 소개한다.

서양 문학작품의 원조로 손꼽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트로이 전쟁과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이야기를 통해 호메로스가 펼쳐는 장엄한 대서사시를 보여준다.

또 한계상황에 처한 인간의 실존문제를 분석한 헤밍웨이,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 천정에 그린 세계 최대의 벽화 '천지창조'의 한부분.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 그렸다.

우리 눈으로 서양고전 읽기

플라톤의 '국가'에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까지
 인문·자연·정치·사회·문학 고전 68편 선정
 국내 각 분야 전문가 58인이 제기한 '어떻게 살 것인가'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1·2·3·4
 김정현 교수의 57명 출판사 휴머니스트 5만1000원

60년동안 히곡인 <파우스트>를 집필한 독일의 대문호 괴테, 끝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데미안을 통해 통합과 단일의 공간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헤세, 어린이의 눈으로 인간과 세계, 우주를 성찰한 <어린왕자>를 쓴 생텍쥐페리 등 총 14명의 작가가 쓴 17종의 고전이 소개된다.

<4권 문학 하>에서는 작품이 네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현실과 욕망' 편에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스탕달의 <적과 흑>, 발자크의 <잃어버린 환상>,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있다.

'낮은 땅 높은 이야기'에는 만조니의 <악혼자>, 에밀첼라의 <목로주점>,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 네루다의 <모두의 노래>, '여성성으로 여성성을 넘어' 편에는 살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울프의 <등대로>,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세계 혹은 허구적 실험'에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브로흐의 <픽션들>, 마르크스의 <백년동인의 고독>, 피어시그의 <선과 모타사이클 관리술>이 추천됐다.

이 작품들에 대한 리뷰들은 저자에 따라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글쓰기로 되는데, 저마다의 다양한 코드로 안내하는 방법을 따라가 보면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현재의 문제 상황과 결부하여 어떻게 문제의식을 던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라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문제의식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지구산업
 www.bangaro.com/지구산업
 TEL:(063)323-3010-1 FAX:(063)323-3012
 계재번호: [농협] 505055-56-005933 예금주: 지구산업 박영호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문지해설 신서남역자 / 27사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개재 대원 문제현 선사님 역경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신서(神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바로보인 부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권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폭재로 세상을 폭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선가귀감 출간!!!>
 선가귀감은 깨닫고 넘어가는 비법이
 고스란히 전수되어 있는
 선가의 거울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바로보인 선가귀감은
 대소설마다 대한문지해설 신서의 사상이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듯
 역대 조사와 서산대사의 의중을 꿰뚫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철(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정교,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밀번호)

서울·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도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